

# 불편한 이웃 산담·주택... 해법은

묘지주, 민원 제기 “불편하고 해결안돼 답답”  
건축주 준공검사 받지 못해... 시 “현장 확인”

“이러면 삼자(묘지주·건축주·시청)가 곤란한거예요...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네요.”

지모(78) 할아버지는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소재 자신의 증조모의 묘지를 찾았을 때 깜짝 놀랐다. 묘지 인근에는 다세대 주택이 지어져 있었는데 묘지를 둘러싼 산담이 다세대 주택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다세대 주택 사업자 측은 지 할아버지에게 조상묘의 산담을 건물과 조금 이격 시킨 뒤 준공검사를 마친 뒤 원상복구를 해주겠다고 제안도 했지만, 지 할아버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상복구 이후에도 조상묘의 산담이 건물과 맞닿아 있어 불편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에 지 할아버지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건축허가를 내준 서귀포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별다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18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을

찾아 “우리(묘지주)는 산담이 건물과 맞닿으면서 불편을 겪고 있고, 건축주는 이로 인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받고 있다. 또 서귀포시청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사용승인을 내줄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 삼자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당시 건축허가를 내준 서귀포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렇다할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업자측에서 해당 건

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는 사용승인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 할아버지의 조상묘는 현재 묘적이 없어 지적상 경계를 구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더불어 다세대 주택 사업자 측은 묘지 구역을 침범하지 않고 건물을 지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19일 현장을 확인해 문제 여부 등을 파악해 대책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9456@halla.com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소재 지모 할아버지 조상 묘지의 산담이 건물과 맞닿아 있다. 이태윤기자



빛 속 바다풍경 보며... 비가 내린 18일 제주시 용담2동 용두담에서 관광객들이 우산을 쓰고 제주의 바다를 감상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전 남편 살해사건’ 피해자 추정 유해 발견

15일 김포시 한 조각장서  
뼈 추정 물체 40여점 발견

‘전 남편 살해사건’의 피해자의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이번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조각장에서 발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경기도 김포시 한 조각장에서 고유정(36)의 전 남편 강모(36)씨의 유해로 추정되는 ‘뼈 추정 물체’ 40여점을 발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된 물체는 조각을 마친 1~2cm 크기로 지난 17일 국과수에 감정의뢰를 요청했으며, 감정까지는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경찰은 고씨가 지난달 31일 김포에서 새벽 3시12분부터 8분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쓰레기장에 유기한 모습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시신발견을 위한 수색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인천시 소재 재활용업체에서 ‘뼈 추정 물체’를 발견했으나 감정 결과 ‘불상의 동물

뼈’로 확인됐다. 이어 14일 인천시 소재 재활용업체서 2박스 분량의 ‘뼈 추정 물체’를 추가로 수거해 국과수에 긴급 감정의뢰를 요청한 상태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에서 9시16분 사이 제주도 조천읍 소재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제주와 경기도 김포시에서 두 차례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 “두개의 공항 필요없다” “제2공항 찬반 떠나 갈등 해결 모색을” 제2공항반대단체 촉구

제주제2공항건설추진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국민행동은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공항은 필요없다”며 “제2의 4대강인 제주 제2공항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4월 17일 재개된 ‘제주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가 17일자로 종료됐지만 검토위원회의 권고안은 결국 도출되지 않았다”며 “집권여당이 ‘도민의견수렴’을 합당한 당정협의의 주체인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도민공론화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도민의 대의기관이며 도민주권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제주도의회가 도민의견 수렴의 주체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석기자

도내 대학교수 100인 선언문

제주제2공항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결을 바라는 제주지역 대학교수 100인이 18일 선언문을 내고 “제2공항 문제의 찬반을 떠나 갈등 해결을 위한 해법이 시급히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사회는 제주공항 확충과 제2공항 건설 방안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3여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면서 “당초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가 컸던 것이 사실이나 비민주적인 입지 선정 방법,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불신 등으로 대다수의 도민들이 제주제2공항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민주적 의사와 절차적 투명성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한 절차적 투명성을 전제로 한 제주제2공항 추진 공약이 지켜져야 한다”며 “원희룡 제주도지사과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도민들의 여론에 따라 갈등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현석기자

표선서 붉은바다거북 사체

18일 오전 10시48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서산동 해변탈의장 인근 갯바위에서 국제보호종인 붉은바다거북 사체가 발견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발견된 붉은바다거북 사체는 몸길이 1m, 너비 75cm 크기로, 불법포획 흔적 및 흔적은 없고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다.

이태윤기자

## 전 남편 유족, 고유정 친권상실 법원에 청구

‘전 남편 살해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피의자 고유정(36)이 갖고 있는 아들 A(5)군 친권을 상실시켜 달라며 법원에 청구했다.

18일 고씨에 의해 살해당한 전 남편 강모(36)씨의 유족 측은 친권상실 신고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요구하는 심판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

에 접수했다.

유족 측은 “고유정과 같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고인의 자녀 장래를 위해 하루빨리 고유정 친권이 상실되고 후견인이 선임돼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후견인으로 강씨의 남동생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고인의 재산에 대한

유일한 법정상속자인 A군이 어린 관계로 친권을 소유한 고씨가 재산을 관리할 수도 있다”며 “무엇보다도 고인 아들의 복리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친권상실 청구를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강씨의 남동생은 아이의 조부모와 거주하고 있으며 A군에 대한 애정이 깊고 성년이 될때까지 최선을 다해 후견하려는 의지가 강해 후견인으로 신청했다고 전했다.

김현석기자

## 최근 10년간 제주 폭염·열대야일수 증가

폭염 7.5일... 열대야 34.8일

제주지역 폭염 및 열대야일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제주도 폭염 및 열대야 통계 분석’에 따르면 2018년 제주도 폭염일수는 9일, 열대야일수는 41일로 확인됐다.

이해 관측 자료가 확보되기 시작한 1973년 이후 폭염일수는 4위이며 열대야일수는 5위를 기록한 것으로 1994년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평균(1981~2010년) 기간 연 폭염일수는 4.3일이며 월별로는 6월 0.1일, 7월 1.8일, 8월 2.3일, 9월 0.2일이다. 열대야일수는 26.2일로

월별 6월 0.3일, 7월 10.5, 8월 13.8일, 9월 1.8일이었다.

최근 10년간 제주도 평균 폭염일수는 7.5일로 평년보다 3.2일 많았으며, 평균 열대야 일수는 34.8일로 평년보다 8.6일 많았다. 월별 평균 폭염일수는 6월 0.1일, 7월 2.9일, 8월 4.4일, 9월 0.2일이며, 월별 평균 열대야일수는 6월 0.2일, 7월 14.6일, 8월 18.8일, 9월 1.2일로 8월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증가폭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석기자

## 맛과 향이 좋은 감귤(만감) 어떻게 생산 할 것인가

→ 하하농법만이 해결책이다

**당** H<sub>2</sub>O+CO<sub>2</sub>+햇빛(광)조화 => 당상승  
 ◎ 꽃이 성상개비 ◎ 꽃이 봉알 ◎ 2차낙과 후 일주일 간격 2회  
 ◎ 과일색이 탈색될때 3회 => **해피한그린** + **글루칼** 엽면시비

**양양(갑)** 내피를 양양막 또는 양양이라 하는데 양양을 부드럽고 씹히는 정도가 가볍게 하려면 => 붓손이 녹화되면 첫 세균(뿌리)발생시 자연(천연) 가리가 9% 들어있는 **하이휴믹** 토양관주

**향** 감귤(만감)을 먹고나서 여운의 향을 입안에 퍼지기 위해 착색시 => **해피한그린** + **글루칼** + **팡이엔** 을 2번 엽면시비

**해피한그린** 이온이 3개인 희토 원소가 들어있는 복합생육조절제

**글루칼** 포도당 칼슘(글루콘산)으로 높은 흡수율을 자랑

**팡이엔** 고기능 식이유황(MSM)함유된 환경친화적인 고기능 생육 촉진제

**하이휴믹** 알카리성 천연가리(K-부식산)로 친수성이 뛰어난 포타슘 휴믹산

곰팡이감귤유통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

제주시정 소식				
2019. 7.1일부터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 대상여부 판단 기준표				
차종	사 레	차고지증명 대상여부(0, X)		비고
		현재	확대시	
대형	'07. 1. 31. 이전 최초 등록된 차량(정차중)을 종고차로 구입 또는 차량을 가지고 주수변경	X	X	시행일 ('07. 2. 1)
	'07. 2. 1. 이후 대형 신차 구입	O	O	신차구입
	'07. 2. 1. 이후 최초 등록된 대형차량을 '19. 7. 1. 이후 읍·면지역에서 종고차로 구입	O	O	명목이전
	'07. 2. 1. 이후 최초 등록된 대형차량을 가지고 '19. 7. 1. 이후 읍·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주수변경	O	O	주수변경
	'16. 12. 31. 이전 최초 등록된 중형차량을 종고차로 구입 또는 차량을 가지고 주수변경	X	X	시행일 ('17. 1. 1)
	'17. 1. 1. 이후 중형 신차 구입	O	O	신차구입
중형	'17. 1. 1. 이후 최초 등록된 중형차량을 동지역에서 종고차로 구입	O	O	명목이전
	'17. 1. 1. 이후 최초 등록된 중형차량을 가지고 동지역으로 주수변경	O	O	주수변경
	'19. 6. 30. 이전 최초 등록된 전가차 차량을 신차 또는 종고차로 구입하거나 차량을 가지고 주수변경	X	X	전가차(중형이상) 시행 예정일 ('19. 7. 1)
전가차	'19. 7. 1. 이후 등록된 전가차(중형이상) 차량을 신차 구입	X	O	신규등록
	'19. 7. 1. 이후 등록된 전가차(중형이상) 차량을 종고차 구입	X	O	"
	'19. 7. 1. 이후 최초 등록된 전가차 차량을 가지고 읍·면지역으로 주수변경	X	O	주수변경
소형·경형차	'22. 1. 1. 까지 유예함	X	X	

문 : 제주시 차량관리과 ☎064-728-3231-3234